

#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2021년 3분기)

2021. 10.

※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2021년 3분기)」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 ◀ 목 차 ▶

### 요 약

#### 1. 최근 고용 동향 / 1

#### 2.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 / 2

가. 서비스업 고용 양극화: 비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대면서비스업 고용 감소 지속 / 2

나.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기업은 구인난,  
구직자는 취업연기 / 4

다. 30대 취업자 감소는 임금근로자,  
특히 상용직에서 두드러져 / 6

#### 3. 결론 및 시사점 / 8

## < 요약 >

### 1. 최근 고용 동향

- ▶ 2021년 3분기 고용지표는 지난 2분기에 이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등 회복세 시현. 다만 최근 고용지표 회복의 상당 부분은 기저 효과에 기인하고 있음에 유의

### 2.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

#### 가. 서비스업 고용 양극화

: 비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대면서비스업 고용 감소 지속

- ▶ 코로나19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비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로 전환되며 회복되는 반면, 도·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아직도 감소가 지속되는 서비스업 고용의 양극화 발생
  - ※ 주요 서비스업 고용 증감 추이(만명, 전년동기비, 통계청)
    - ▶ 비대면서비스업: -5.9('20.3q) → -5.9(4q) → 1.7('21.1q) → 23.2(2q) → 24.5(3q)
    - ▶ 대면서비스업: -51.8('20.3q) → -61.8(4q) → -57.4('21.1q) → -16.6(2q) → -16.4(3q)
  - ※ 대면서비스업 중 교육서비스업은 대면 수업 확대 영향으로 '21년 2분기 이후 고용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

#### 나.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기업은 구인난, 구직자는 취업연기

- ▶ 현장에서의 구인난은 커지는데, 좋은 일자리를 찾아 자발적으로 취업을 연기하는 구직자(취업준비생)는 늘어나는 미스매치 현상 심화
  - ※ 인력 부족률은 2.2%로 전년동기비 0.4%p 상승, 부족 인원은 28.2만명으로 전년 동기비 5.9만명 증가('21년 상반기, 5인 이상 사업체, 고용노동부)
    - ▶ 인력부족률(%): 1.9('19.上) → 2.0('19.下) → 1.8('20.上) → 1.9('20.下) → 2.2('21.上)
  -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21년 2분기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20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전년동기비)
    - \* 비경제활동 사유 중 ①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②취업준비
  - ▶ 취업준비 증감(만명): 6.8('20.3q) → 5.0(4q) → 6.4('21.1q) → 5.4(2q) → 6.9(3q)

## 다. 30대 취업자 감소는 임금근로자, 특히 상용직에서 두드러져

- ▶ 대다수 연령대에서 고용이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30~39세) 고용은 오히려 감소 지속. 30대 취업자 감소는 임금근로자, 특히 '안정적 일자리'로 불리는 상용직에서 두드러짐.
  - ※ '21년 3분기 줄어든 30대 취업자 7.4만명 중 54.1%가 상용직(전년동기비)

### 3. 결론 및 시사점

- ▶ 2021년 3분기 고용 흐름은 비대면서비스업 고용은 회복되는 반면,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아직도 감소하는 서비스업 고용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기업의 구인난은 확대되는데 취업준비생은 늘어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
- ▶ 경기회복이 모든 연령·계층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완전한 고용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각종 노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체계를 정비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함.

⇒ (채용을 옥죄는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 대면서비스업과 30대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높여야 하지만, 경쟁국보다 높은 최저임금과 경직적인 노동 관련 법·제도가 기업이 사람 뽑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안정과 유연한 근로시간제 마련 등 고용 경직성 완화를 위한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우리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대비 60%를 초과한 수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대면서비스업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 노동시장 유연성은 141개국 중 97위로 최하위권('19년, WEF)

⇒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체계 정비) 적극적인 취업 정보 제공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연결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 예산을 확대하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할 필요

※ 청년층의 주된 취업 경로 중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은 12.5%에 불과(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1.7)

※ 일자리 예산(33.6조원) 중 '직업훈련(7.1%)', '고용서비스(3.8%)'에 배정된 예산은 10% 수준에 불과('20년 기준, 고용노동부)

# 1 최근 고용 동향

① **(고용지표 회복세 지속)** 2021년 3분기 고용지표는 지난 2분기에 이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등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

- 취업자가 7개월(2021.3월~2021.9월) 연속 증가하면서 고용창출력이 개선. 4월 이후 둔화되던 취업자 증가폭도 9월 67.1만명\*으로 대폭 증가

\* '14년 3월(72.6만명) 이후 7년 6개월만에 최대 증가폭

- 실업자가 6개월(2021.4월~2021.9월) 연속 감소했고, 실업률도 6개월 연속 하락(전년동월비)

< 표 1. 최근 취업자·실업자·실업률 증감(전년동월비) 추이 >

구분	2021.3	2021.4	2021.5	2021.6	2021.7	2021.8	2021.9
취업자	31.4만명	65.2만명	61.9만명	58.2만명	54.2만명	51.8만명	67.1만명
실업자	3.6만명	-2.5만명	-13.0만명	-13.6만명	-21.8만명	-12.0만명	-24.4만명
실업률	0.1%p	-0.2%p	-0.5%p	-0.5%p	-0.8%p	-0.5%p	-0.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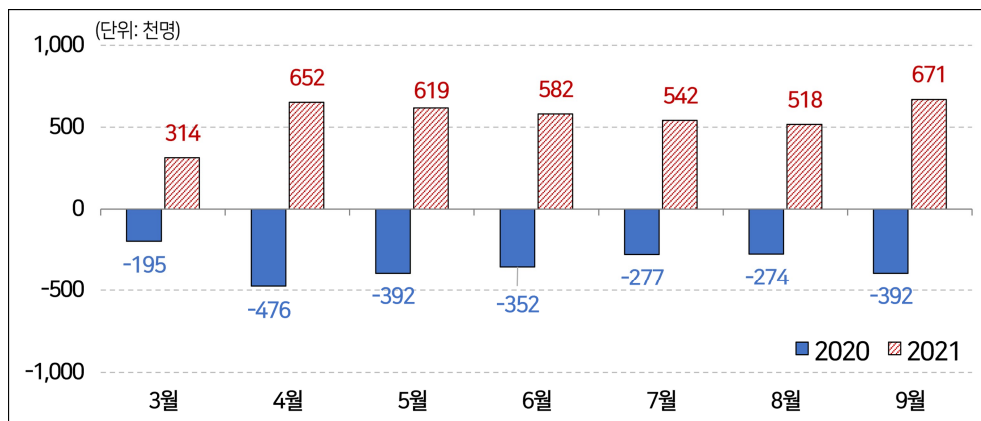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② **(기저효과에 유의)** 다만 최근 고용지표 회복의 상당 부분은 기저효과\*에 기인하고 있음에 유의

\* 비교 대상 수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 나타나는 통계적 착시현상

- ▶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요인으로 고용이 급격히 위축된 '20년과 비교하면, '21년 고용지표의 증가폭이 커지는 착시현상 발생

< 그림 1. 최근 월별 고용증감(전년동월비) 비교(2020년 vs 2021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

### 가 서비스업 고용 양극화 : 비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대면서비스업 고용 감소 지속

① **(비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타 업종에 비해 고용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비대면서비스업\* 고용은 2021년 들어 빠른 고용 회복세 시현

\* 5개 업종: ①정보통신업, ②금융 및 보험업, ③부동산업, ④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⑤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한국노동연구원)

-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비대면서비스업 고용은 2021년 1분기 (+)로 전환되었고, 이후 증가폭이 커지는 모습

< 표 2. 비대면서비스업 고용 증감(전년동기비) 추이(단위: 만명) >

구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비대면서비스업 합계	3.1	-4.4	-5.9	-5.9	1.7	23.2	24.5
정보통신	-2.6	-0.3	-0.9	-1.8	0.4	4.2	7.2
금융보험	-2.2	-1.5	-2.6	-2.5	1.4	3.2	2.1
부동산	1.9	-4.1	-6.4	-7.1	-4.0	1.4	3.3
전문과학기술	2.0	1.2	-0.1	-0.2	1.4	7.0	5.7
사업시설 관리	4.0	0.3	4.1	5.7	2.5	7.4	6.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② **(대면서비스업 고용 감소 지속)**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대면서비스업\*은 아직도 고용 감소가 이어지는 모습

\* 5개 업종: ①도매 및 소매업, ②숙박 및 음식점업, ③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④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⑤교육 서비스업(한국은행)

- 도·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2020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감소. 다만 2021년 2분기 이후 감소폭은 줄어드는 모습

- 특히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는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도·소매업 사업장 규모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기비, 통계청)

▶ 5인 미만: -12.8('21.1q)→ -9.8(2q)→ -8.4(3q)

▶ 5인 이상: -6.5('21.1q)→ -6.2(2q)→ -5.6(3q)

< 표 3. 대면서비스업 고용 증감(전년동기비) 추이(단위: 만명) >

구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대면서비스업 합계	-14.0	-51.0	-51.8	-61.8	-57.4	-16.6	-16.4
도소매	-12.3	-16.2	-17.0	-18.4	-19.3	-16.1	-14.0
숙박음식	-0.3	-19.3	-20.6	-23.4	-20.9	2.6	-0.4
예술스포츠여가	4.5	2.3	-0.9	-5.4	-4.4	-3.1	-3.5
개인서비스	-2.5	-8.2	-2.4	-4.3	-8.6	-4.3	-4.4
교육서비스	-3.4	-9.6	-10.9	-10.3	-4.2	4.3	5.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반적인 대면서비스업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교육서비스업은 2021년 2분기 이후 고용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 이는 2021년 들어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원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 '21학년도 1학기 평균 등교율은 73.1%로 50% 수준이었던 '20학년도 등교율(初: 48.6%, 中: 46.3%, 高: 54.8%) 대비 증가(교육부)

※ 전체 서비스업\* 고용은 2021년 2분기 (+)로 전환된 후 증가폭이 확대되며 회복되는 모습. 2021년 들어 공공·복지 등 기타서비스업, 비대면 서비스업은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대면서비스업은 오히려 취업자 감소 지속(전년동기비)

\* 표준산업분류 상 농림어업(A), 광업(B), 제조업(C), 전기·가스·증기업(D), 건설업(F) 제외(기획재정부)

▶ 공공·복지 등 기타서비스업은 코로나19 충격에도 취업자 증가 지속

< 서비스업 고용 증감(전년동기비) 추이(단위: 만명) >

구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서비스업 합계	18.8	-35.3	-27.9	-41.8	-38.0	47.8	50.2
공공·복지 등 기타서비스업	29.7	20.1	29.8	25.9	17.7	41.2	42.1
비대면서비스업	3.1	-4.4	-5.9	-5.9	1.7	23.2	24.5
대면서비스업	-14.0	-51.0	-51.8	-61.8	-57.4	-16.6	-16.4

주: 공공·복지 등 기타서비스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가구내 고용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등 6개 업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나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기업은 구인난, 구직자는 취업연기

① **(인력 부족률 상승: 구인난)** 최근 기업들은 구인난을 겪으면서 인력 부족률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부족 인원\*도 확대되는 모습. 인력 부족률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높게 나타남.

\* 채용 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現 시점보다 더 필요한 인원(고용노동부)

- 2021년 상반기 인력 부족률은 2.2%, 인력 부족 인원은 28.2만명에 달하면서 전년동기보다 인력 부족률은 0.4%p 상승하고 인력 부족 인원은 5.9만명 증가(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 인력 부족률은 '18년 하반기(2.2%) 이후 최고치, 부족 인원은 '18년 상반기(29.6만명) 이후 최고치

< 표 4. 인력 부족률과 인력 부족 인원 추이 >

구분	2019.上	2019.下	2020.上	2020.下	2021.上
인력 부족률	1.9%	2.0%	1.8%	1.9%	2.2%
인력 부족 인원	23.5만명	24.1만명	22.3만명	23.8만명	28.2만명

주: 인력 부족률 = 부족 인원 ÷ (현원 + 부족 인원) × 100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 사업장 규모별 인력 부족률은 5~9인, 30~99인에서 2.6%, 10~29인 2.4%로 높게 나타난 반면, 100~299인은 1.9%, 300인 이상은 1.3%로 상대적으로 낮았음(2021년 상반기 기준).

※ 100인 미만 사업장의 인력부족률 추이(% , 고용노동부)

[5~9인] 2.6('19.上)→ 2.4('19.下)→ 2.5('20.上)→ 2.5('20.下)→ 2.6('21.上)

[10~29인] 2.0('19.上)→ 1.9('19.下)→ 1.7('20.上)→ 2.0('20.下)→ 2.4('21.上)

[30~99인] 2.1('19.上)→ 2.1('19.下)→ 1.9('20.上)→ 2.0('20.下)→ 2.6('21.上)

② **(취업준비생 증가: 자발적 취업연기)**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원하는 자발적 취업 연기자로 추정되는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는 모습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2분기 이후 2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전년 동기비)

\* 비경제활동 사유 중 ①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②취업준비를 합한 수치 (통계청)

< 표 5. 비경제활동인구(전체·취업준비) 증감(전년동기비) 추이(단위: 만명) >

구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비경제활동 전체	11.3	64.3	52.3	54.3	45.8	-22.5	-8.9
인구 취업준비	-0.9	6.4	6.8	5.0	6.4	5.4	6.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85.7만명)'가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 32.8%(28.1만명),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5.8%(22.1만명),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16.4%(14.1만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21년 1~9월 평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다 30대 취업자 감소는 임금근로자, 특히 상용직에서 두드러져

① (30대 취업자 감소 지속) 2021년 3분기 연령대별 고용지표는 청년층(15~29세), 40대(40~49세), 중고령층(50세 이상)에서 회복세를 보인 반면, 30대(30~39세) 고용은 감소세 지속

- 30대 취업자는 2020년 3월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전년동월비)

< 표 6. 최근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추이(단위: 만명) >

구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전체	28.8	-40.7	-31.4	-44.1	-38.0	61.8	57.7
15~29세	-7.1	-19.9	-19.5	-26.5	-10.3	17.6	18.2
30~39세	-2.4	-18.4	-22.8	-22.7	-22.7	-9.3	-7.4
40~49세	-10.3	-18.6	-17.4	-17.0	-15.4	-0.2	1.3
50~59세	1.5	-14.3	-11.1	-11.1	-9.9	9.6	10.3
60세 이상	47.1	30.5	39.4	33.2	20.2	44.1	35.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30대(30~39세) 취업자 감소는 ①30대 인구 감소, ②30대 취업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고용 부진에 주요 기인(통계청)

① 최근 30대 인구 증감 추이(만명, 전년동기비, 통계청)

: -15.3('20.3q) → -15.3(4q) → -15.0('21.1q) → -15.0(2q) → -14.3(3q)

② 주요 업종별 30대 취업자 비중(% , '21년 3분기 기준, 통계청)

[제조] 19.7 [도소매] 14.0 [교육서비스] 8.2 [보건복지] 8.0

② (임금근로자, 특히 상용직 감소 뚜렷) 30대 취업자 감소폭은 임금근로자, 특히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불리는 상용직\*에서 크게 나타남.

\* 고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취업자. 임시직(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나 일용직(계약기간 1개월 미만)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 2021년 3분기 줄어든 30대 취업자 7.4만명 중 66.2%인 4.9만명이 임금근로자. 특히 30대 상용직이 4.0만명(30대 취업자 전체 감소분의 54.1%) 감소(전년동기비)

※ 30대 상용직은 '20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감소

< 표 7. 종사상지위별 30대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추이(단위: 만명) >

구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전체	-2.4	-18.4	-22.8	-22.6	-22.7	-9.3	-7.4
임금근로자 소계	-4.7	-17.8	-21.0	-22.4	-18.6	-6.1	-4.9
상용직	-0.8	-9.7	-14.1	-17.7	-11.1	-3.4	-4.0
임시·일용직	-3.9	-8.2	-6.9	-4.7	-7.5	-2.7	-0.8
비임금근로자 소계	2.3	-0.5	-1.8	-0.2	-4.1	-3.2	-2.6
자영업자	2.6	1.4	0.3	1.3	-2.0	-2.3	-1.9
무급가족종사자	-0.3	-2.0	-2.1	-1.5	-2.0	-0.9	-0.6

주: 각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통계청).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최근 동향)** 최근 고용지표는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당 부분이 기저효과에 기인하고 있음에 유의
- **(고용 흐름 특징)** 2021년 3분기 고용 흐름은 비대면서비스업 고용은 회복되는 반면,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아직도 감소하는 서비스업 고용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기업의 구인난은 확대되는데 취업준비생은 늘어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
- ① **(서비스업 고용 양극화)** 취업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업종별로는 회복속도에 차이 발생. 특히 코로나19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대면서비스업 고용은 (+)로 전환되며 회복되는 반면,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아직도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 감소가 지속되는 서비스업 고용의 양극화 발생
  - ※ 주요 서비스업 고용 증감 추이(만명, 전년동기비, 통계청)
    - ▶비대면서비스업: -5.9('20.3q)→ -5.9(4q)→ 1.7('21.1q)→ 23.2(2q)→ 24.5(3q)
    - ▶대면서비스업: -51.8('20.3q)→ -61.8(4q)→ -57.4('21.1q)→ -16.6(2q)→ -16.4(3q)
- ②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현장에서의 구인난은 확대되는데, 좋은 일자리를 찾아 자발적으로 취업을 연기하는 구직자(취업준비생)는 증가하는 미스매치 현상 심화
  - ※ 인력 부족률은 2.2%로 전년동기비 0.4%p 상승, 부족 인원은 28.2만명으로 전년 동기비 5.9만명 증가('21년 상반기, 5인 이상 사업체, 고용노동부)
  -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21년 2분기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20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전년동기비)
- ③ **(30대 취업자 감소 지속)** 대다수 연령대에서 고용이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허리를 받치는 30대(30~39세) 고용은 오히려 감소. 30대 취업자 감소는 임금근로자, 특히 '안정적 일자리'로 불리는 상용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 '21년 3분기 줄어든 30대 취업자 7.4만명 중 54.1%가 상용직(전년동기비)

□ **(개선방안)** 경기회복이 전 연령·계층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완전한 고용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각종 노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체계를 정비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함.

① **(채용을 옥죄는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 대면서비스업과 30대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높여야 하지만, 경쟁국보다 높은 최저임금과 경직적인 노동 관련 법·제도가 기업이 사람 뽑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안정과 유연한 근로시간제 마련 등 고용 경직성 완화를 위한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우리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대비 60%를 초과해 주요 경쟁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 특히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대면서비스업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저임금 영향률(% , '21년): [숙박음식] 48.9 [예술·여가] 37.3 [도·소매] 24.7

※ 우리 노동시장 유연성은 141개국 중 97위로 최하위권('19년, WEF). 고용·해고, 임금조정 등의 융이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은 채용 확대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실업자의 16.7%,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의 20.3%가 30대(30~39세)였음('21년 1~9월 평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②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체계 정비)** 적극적인 취업 정보 제공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연결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 예산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함.

※ 청년층의 주된 취업 경로 중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은 12.5%에 불과(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1.7)

※ 일자리 예산(33.6조원) 중 '직업훈련(7.1%)', '고용서비스(3.8%)'에 배정된 예산은 10% 수준에 불과('20년 기준, 고용노동부)

※ 지역 맞춤형 훈련 중 신기술 분야(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등 8개 핵심선도 기술) 훈련은 4.5%('18년~'19.9월 기준, 고용노동부)